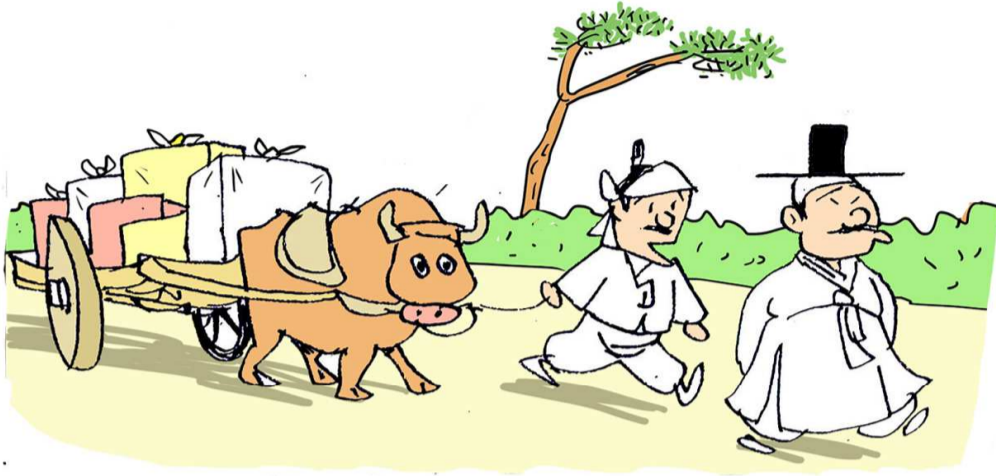


15. 청탁을 뿌리친 퇴계(39세)

3년 상을 치른 후 퇴계가
홍문관 수찬이 되어 경연의
검토관을 겸하고 있을 때였다.



한성에서 부자로 소문난
벼슬아치가 있었다.

내가 돈은 많은데
벼슬이 후지니
체면이 안 서...



세상에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있으면 나와
보라구해.



요즘 경연의 검토관으로 있는
퇴계가 상감의 신임이
두텁다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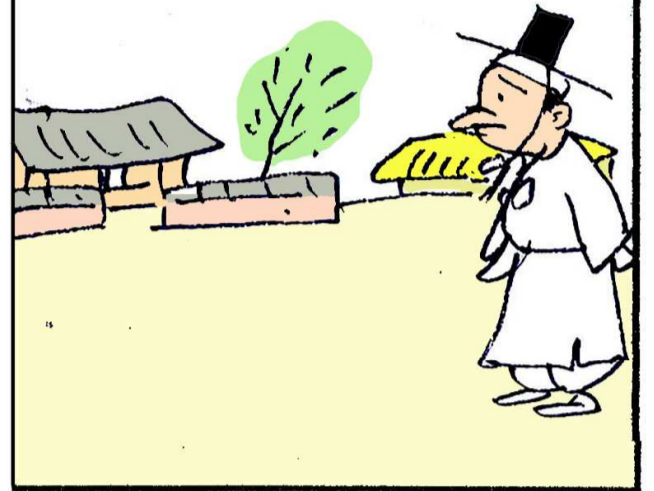
찾아가 보자.



벼슬아치는 수레에 고가품을 가득 싣고 퇴계의 집을 향해 출발했다.



저 집이렸다. 찻찻
생각보다 초라하게
사네...



헤헤, 저는 장안에
사는 아무개라
합니다요.



그러신데요?

일은 죽어라고
하는데 웬일인지
진급 운이 없어
고민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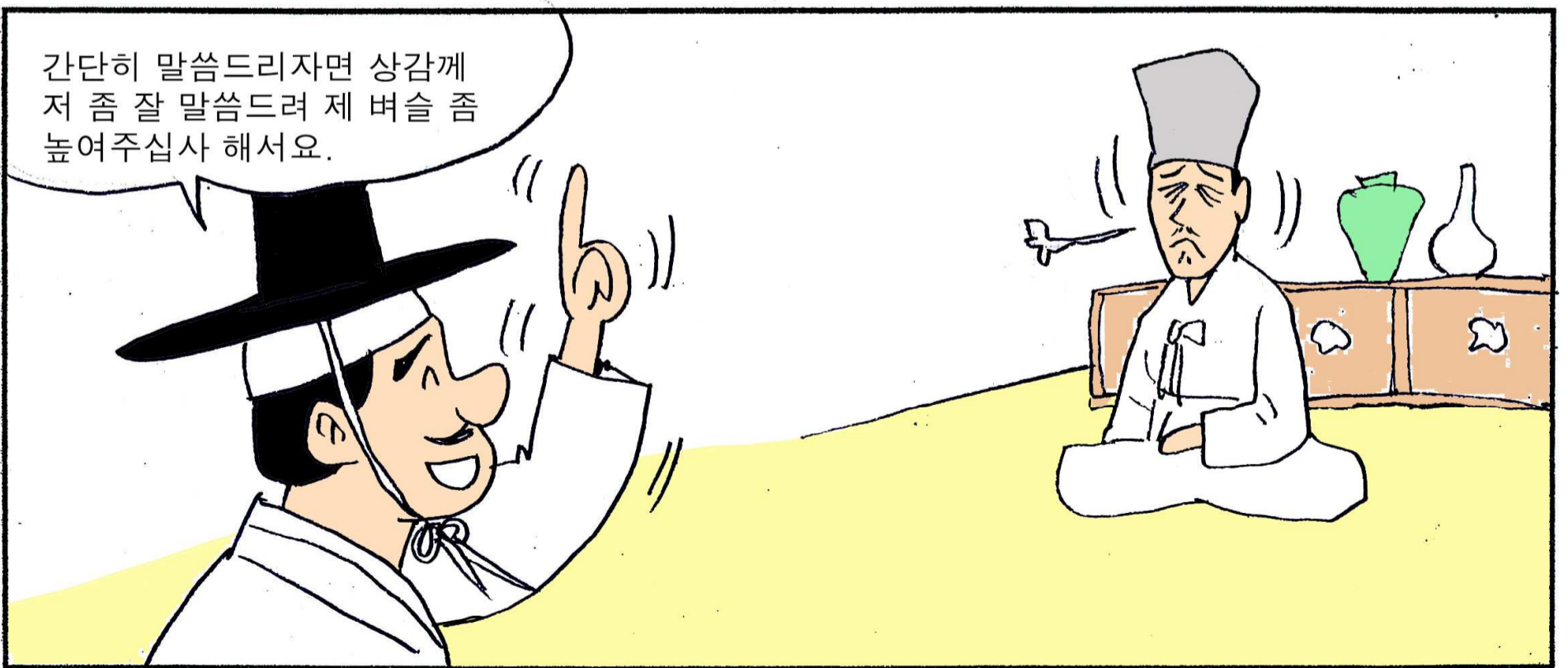
안되면 될 때
까지 더 열심히
하시면 되죠.



이놈아 뭐하냐? 후딱 가서
달구지에 바리바리 싣고 온
선물들을 마당에 풀어
놓지 않고!

에으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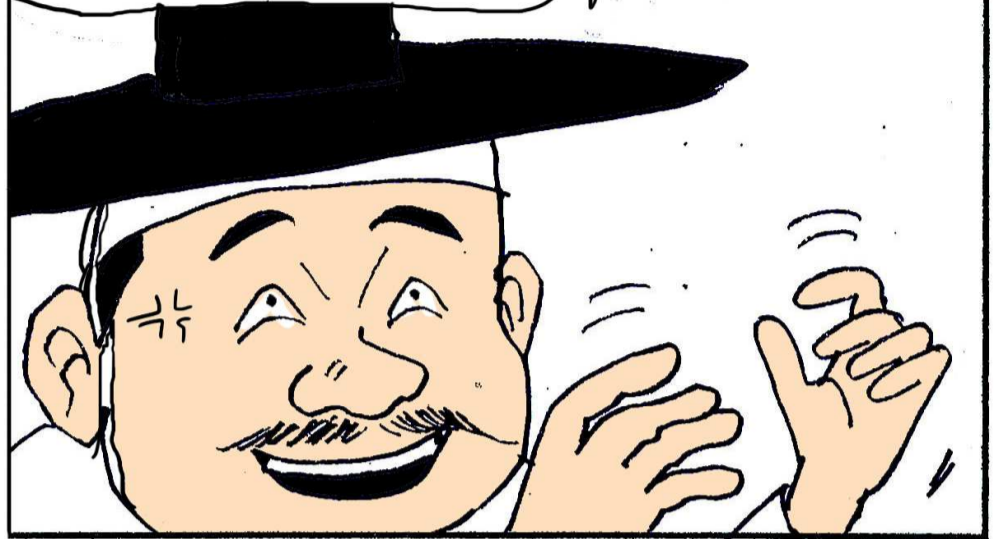




간밤에 꿈자리가 어수선하더니
이자가 날 어찌 보고 이런 수작을
한단 말인가...
귀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구나.



헤헤헤. 그렇게만 해 주신다면 다음 번엔
명나라에서 들여 온 진품들을 듬뿍
구해서 보내겠습니다요.



그따위
쓰레기같은
말을 하려고
날 찾아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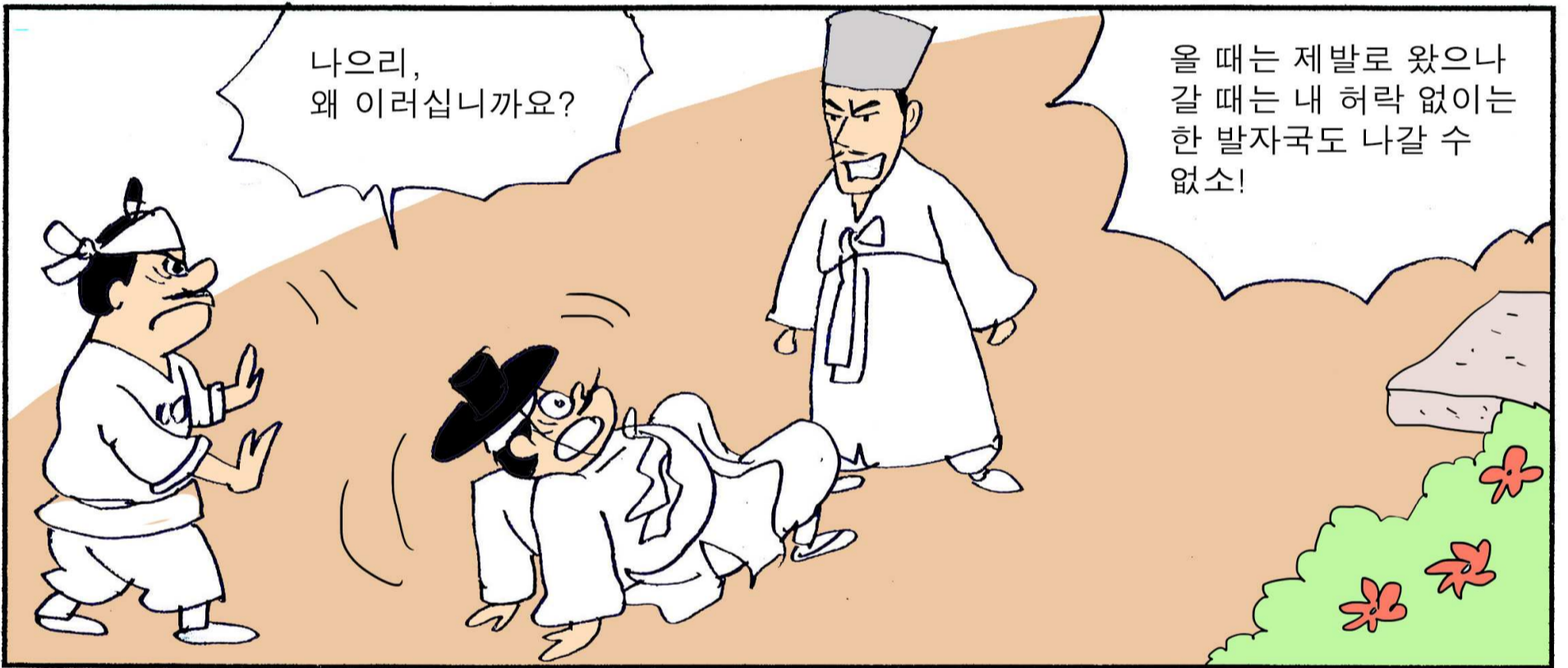
퇴계는 뇌물이
안통하는구나.
잘 못 왔으니
일단 이 자리를
뜨는게 낫겠어.



그,그럼 시,실례
했습니다요...



여봐라!
밖에 누구 없느냐?



벼슬을 돈으로 살려고 하는 당신같은 자들때문에 탐관오리들이 매관매직으로 배를 불러 나라 안이 온통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것이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다시는 안그럴테니 용서해 주십시오.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겠소?

알다마दा요, 용서만 해 주신다면 다신 안 그러겠습니다!



뇌물로 벼슬을 사려하지 말고 정당한 실력으로 승진해야지, 이번 일은 용서할테니 바르게 살도록 하시오...



퇴계는 벼슬아치에게 알아듣게 타이르고 돌려보냈다.

공직자는 청렴이 생명 이오.

휴~ 십년은 감수했다...

음메~

